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평면의 역사

B. W. 희맥 지음·박우정 옮김

“곡물 농사에서 현대식 수확기들은 넓은 일지선 낚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환경, 즉 변화 없는 평평함을 요구한다. 1900년경 증기기관을 농기계로 사용했을 때는 땅을 매끈하게 고르고 엔진이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 기계 앞쪽에 무거운 롤러를 부착했다. 이 모든 것은 땅의 표면을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원자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본문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평면에서 이루어진다. 평평한 종이에 글을 쓰고 평평한 모니터를 바라보며 업무를 한다. 그뿐 아니다. 평평한 도로를 달리거나, 평평한 바닥에서 생활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고대에서 현대까지 평면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아무런 의식없이 평평한 표면이 주는 혜택을



우리면서 그것의 가치는 알지 못했다. 그렇다 왜 평면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될까. 인류 역사의 기반인 평면의 실체를 파헤친 책이 발견됐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이자 작가인 B. W. 희맥이 저술한 ‘평면의 역사’는 평평함의 다양한 관점을 조명한다. ‘평평한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평면의 개념부터 평평한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을 아우른다.

마이를 브라보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독창적이고 놀라운 내용이 가득하다.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평했다. 팀 인골드 에버턴 대학교 교수는 “일단 읽기 시작하면 절대 손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평면은 자연이 갖고 있는 지형의 다양성에 대한 추상적이고 인공적인 공간

의 승리라고 본다. 평면의 일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미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평면의 중요한 의미는 “공간을 구성하는 힘을 정의하는 개념의 기능적 단면과 추상적 단면이 낱실과 씨실처럼 잘 짜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은유적 의미에서 평면의 우세성은 현대의 인간이 경험한 창조에 비견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평면은 매끄러움, 수평, 예측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동성에 용이한데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와 달리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누구나 인식하는 단조로움, 동질성, 부재, 결핍, 무미건조, 지루함 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편평족이나 빈약한 가슴, 낮은 코 등은 조롱의 대상이었다고 본다(물론 시대에 따라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문화도 있었지만). 또한 평평한 풍경은 쉽게 폄하되곤 했다. 수려한 경관이나 웅장한 장면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는 평평한 플랫폼에 수직으로 선 채로 하나의 평평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이동하게 해준다. 엘리베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소스의 책 제공>

그러나 현대문명에서 평면은 모두 계획 이르는 철도는 건축학적인 평면 도시를 연 땀겨나 인위적으로 설계된 거였다. 오늘날의 5000만km가 넘는 도로, 100만km에 이르는 철도는 건축학적인 평면 도시를 연 땀겨나 인위적으로 설계된 거였다. 오늘날의 대부분은 산림 개간이나 토목작업에서

기인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상의 커피는 가파른 비탈에서 자라지만 수확용 기계는 그런 지형에서 넘어져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계를 값비싼 노동력의 대체 품으로 생각하는 지역에서는 가파른 비탈보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평평하다는 이점이 있는 환경에서 커피를 재배한다.”

한편으로 평평한 것의 맛있는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진다. 확실화되는 일상이 피로감을 주지만 효율과 편리, 궁정함의 가치를 내세우는 문화에 익숙해진 탓이다. 평면은 우리가 밭을 딛고 선 현대 세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평면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다양성에 대한 추상적이고 인공적인 공간의 승리이다. 평면의 일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며 “평면은 문명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살아 숨 쉬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불경함의 표시이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소스의 책> 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의 과거

은희경 지음



기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정되지만 한 방을 쓰는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네 명의 학생들이 있다. 국문과 1학년 김유경의 322호 룸메이트는 화학과 3학년 최성욱, 교육학과 2학년 양애란, 의류학과 1학년 오현수다. 또 한 방 최성욱과 절친인 송선미의 방 417호에는 곽주아, 김희진, 이재숙이 있다.

“한국 문학의 하나의 장르”나 다름없는 작가 은희경이 새 장편 ‘빛의 과거’를 펴냈다. 지난 2012년 ‘태연한 인생’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소설에서 작가는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서로가 기억하는 ‘그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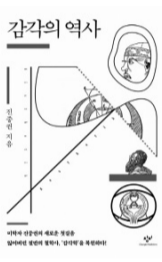
작가는 성년이 된 여성들이 기속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마주친 ‘다름’과 ‘섞임’의 세계를 그려낸다. 기속사 룸메이트들을 통해 다양하며 입체적인 여성 인물들을 제시하고 1970년대의 문화와 시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야기는 1977년 3월 신입생 환영회, 봄의 첫 미팅과 축제, 가을의 오프하우스 행사 등 주요 사건 위주로 진행된다. 김유경의 서사가 이어지는 사이사이 322호와 417호의 룸메이트인 일곱 여성들의 에피소드도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들은 각자 “성년이 되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낯선 세계에 대한 긴장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다.”

정세랑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은희경을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한국 현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나와 닮은 목소리를 드디어 만나 그녀의 차분하지만 낯설고 독특한 말에 과녁처럼 관통당하는 일이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감각의 역사

진중권 지음



이성이 전리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철학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감각학의 역사를 야심차게 복원한 책이 출간됐다. 미학자 진중권이 풀어낸 ‘감각의 역사’는 감각의 위상을 복원하고 이후의 후속 연구에 대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저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감각학의 3부작’의 첫 번째로, 예술의 가치와 정의를 관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학적 탐구 범주를 사회현상 전체로 확장하려는 기획에서 태동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창비 블로그에 ‘다섯가지 감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36회에 걸쳐 연재한 글들이 책의 근간이 됐다.

저자는 예술과 미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관념적 학문으로 협소해진 미학을 감각학, 즉 아이스테시스(Aisthesis)에 대한 학문인 감각학(Aisthethik)으로 확장하자는 독일 미학자 게르노트 보메의 제안을 수용한다. 나아가 보메 미학의 바탕을 이루는 현상학의 개념도구를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다소 낯설었던 고중세의 이론과 이랍의 광학, 풍디악 같은 비주류 철학자의 이론, 감각의 부활을 선언하는 들리즈의 급진적인 현대 미학까지 인류가 전개한 감성연구의 역사를 두루 살핀다.

책의 미덕 중 하나는 인간의 몸과 감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감각체험을 온전히 기술하려는 다양한 철학적 지도를 두루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여러 철학자들을 불러내고 그들의 논의를 풍부한 인용에 간결한 설명을 붙여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근대철학자의 사유실험이 오늘날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하나의 유사인격으로 진화해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비·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넷플릭스의 시대

코리 바커 외 지음



최근 등장한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기존의 TV 방송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2016년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4800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초 넷플릭스가 국내 2~300만명의 가입자 기반을 갖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나마도 한 아이디어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넷플릭스 계’를 제외하면 숫자였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로 자리잡았을까?

코리 바커(브래들리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마이크 비아트르스키(인디애나대학 민속학과-언어학과 학술 고문)가 넷플릭스의 성장 동력과 현재 위치를 파헤친 책 ‘넷플릭스의 시대’를 펴냈다.

책은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뤄낸 3가지 핵심적 발전을 조명한다. 전체 에피소드를 한 번에 공개하며 ‘주 시청 시간대’라는 개념을 부수 ‘일괄 출시 모델’부터 시청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린 ‘몰아보기’, ‘방 중립성’으로 완성된 ‘스트리밍 문화’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2부에서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못말리는 패밀리’ 등 넷플릭스 자체 생산 시리즈를 돌아보고 독특한 배급 모델의 영향력, 참여적 미디어로서의 역할 등을 짚으며, 3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과 그 기술적 패턴, TV의 현 시위와 미래, 불법 다운로드 등 난관 대처법 등에서 넷플릭스의 범세계적 영향력을 살펴본다. <팬덤북스·1만95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물 윤리 대논쟁

최훈 지음



‘사람을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동의 없이 실험하고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크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동물에게도 이 주장이 적용되는지 묻는다면, 의견이 분분해진다. 되려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면 동물의 윤리는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훈 강원대 철학과 교수가 동물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철학적 논쟁들을 짚으며 동물 윤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책 ‘동물 윤리 대논쟁’을 발간했다.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동물 윤리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한 데 담은 책이다.

저자는 동물 윤리가 지지를 잃는 원인으로 육식, 동물 실험, 동물원, 반려동물 등 다양하게 얽힌 인간과 동물 간 관계를 짚으며 지금까지의 ‘관행’이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나, 고틀을 먹어야 하니 동물을 도살해도 괜찮다는 의견에 이르며 모순이 생기는 식이다. 저자는 이같은 관행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짚는다.

책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육식과 포식에 담긴 윤리 문제, 동물 실험, 이종 이식, 동물 감금과 애완동물 등 쟁점을 짚으며 이들 논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장을 통해 발생 하는지 분석한다. 이어 다양한 논리와 이론, 사례를 통해 각 주장을 반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저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동물을 위한 윤리학’ 등 책을 펴냈다. <사월의책·2만2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hye 815 (신협 815) with large red numbers and text: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Shinhye 815 (신협 815) with text: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